

“The Heart of the Matter”는

무엇을 뜻하는가?

고 석 구

“What an absurd thing it was to expect happiness in a world so full of misery.” *The Heart of the Matter*

“He wanted to warn them...don't pity me. Pity is cruel. Pity destroys. Love isn't safe when pity's prowling around.” *The Ministry of Fear*

어떤 作品이든——그것이 小説이든 詩든 간에 key word라는 것이 있다. 作品 안에서 되풀이 나타남으로 해서 그 作品의 主題를 이루는 말을 이름이다. 이 key word를 說明하는데 알맞는 作品이 있으니 Joseph Conrad의 傑作 *Heart of Darkness*가 바로 그것이다. 이 作品은 Africa가 白人에게 天罰을 加하는 얘기이다. 이 作品의 내레이터(narrator)인 Marlow를 태운 배가 Kurtz를 向하여 前進한다. Kurtz는 Africa를 征服하려고 Africa의 Nemesis(應報反罰의 女神)와 한바탕 투쟁을 벌리는 內容이 이 作品의 主題인 것이다. Kurtz는 無慘하게 敗北하는 結果로 끝을 맺기 때문에 그의 臨終의 絶叫 “The Horror! The Horror”라는 말에 作品이 象徴되어있다. 그러므로 作品全體 밑에 無數히 깔려있는 어둠(darkness)이야말로 이 作品을 상징하는 key word인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Graham Greene의 作品에서도 흔히 눈에 띈다. David Lodge의 말¹인 즉 *The Confidential Agent*의 key-word는 “trust”요, *The Power and the Glory*의 그것은 “abandonment”이며 *The End of the Affair*의 그것은 “love and hate”요, Lodge 以外の 數 많은 評論家들이 指摘하듯이 *The Heart of the Matter*의 그것은 “pity”라는 것이다. 이 小説을 詳細히 分析하기에 앞서 “pity”의 概念을 檢討하여 보는 것이 順序인

1) *The Use of Key-words in the novels of Graham Greene*, p. 469.

양 싶다. Oxford Universal Dictionary는 이 말을 “a feeling of tenderness aroused by the suffering or misfortune of another, and prompting a desire for its relief”라고 定義하였거니와 Scobie의 pity의 概念은 神이 人間에게 느끼는 次元 높은 그것이 아니라 人間이 그의 同僚에게 느끼는 同情感情에 不過하다. 「事件의 核心」은 小說로서 成功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初期의 作品 以來 Greene이 一貫하여 追求하여 온 pity의 問題를 正面에서 들추어내고 있는데 意味가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이 pity의 概念은 어디에 由來를 두고있는 것일까? 그것이 지니고 있는 倫理는 Greene의 小說 뿐 아니라 數 많은 作家가 問題視하고 있다. Greene이 좋아하는 Joseph Conrad의 *The Nigger of the Naricissus*에서도 찾아볼 수 있거니와 Dostoevsky의 *The Idiot*에서도 볼 수 있는 問題이기도 하다. 이 作品의 主人公인 Myshkin은 간질病患者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健康이 좋지않을 뿐아니라 精神機能도 正常이 못된다. 그는 스위스의 療養院에서 健康을 어느程度 回復하고 나서 遺産을 相續받을 目的으로 故國으로 돌아간다. 두 女子——Natasya와 Aglaia——가 그를 사랑하게 된다. 前者는 돈이 많은 商人에게 버림을 받은 身勢의 可憐한 女人이요, 後者는 將軍의 스무 살난 막내딸로 美貌에다 才致를 兼한 才媛이다. 前者 亦是 絶世의 佳人으로 小說中の 他人物들이 입을 모아 일컫기를 「幻想의인데다 惡魔의인 美」마저 곁들인 宿命의 女主人公이다. Myshkin이 後者보다는 前者에 더욱 마음이 이끌리어서 그와 結婚하려고 마음을 먹기에 이르는데 그 理由인 즉 그의 친구인 Rogozhin에게 주는 그의 말을 빌리자면 “I loved her not because I was in love with her but because I pitied her.” (*The Idiot*; tr. by Magarshack, p. 240)라고. Natasya는 Myshkin 쪽에 기울어졌다가 그녀는 그를 버리고 단 未婚者인 Rogozhin 편으로 달려간다. 이 求婚者는 그녀를 盲目的이면서 無批判的으로 사랑한다. 何等의 고려도 없이 타고난 野生的 情慾만으로 그녀를 사랑할 뿐이다. 따라서 Natasya에 對한 그의 사랑은 한낱 파괴적인데다 執念의 性質을 떨 수 밖에 없다. Rogozhin은 질투에 불탄 나머지 급기야는 女子를 殺害하고 만다. 그는 Natasya의 屍體 옆에 두 개의 벼개를 나란히 놓고서 하는 말인 즉——「이렇게 이제 우리들 옆에——너와 내 옆에 그녀가 잠들어 있고나」하면서 그는 이제야 온몸이 따스한 感情에 가득하게 된다. 그는 지금 마지막의 간질의 發作이 다가오는 Myshkin 옆에 살며서 다가가서 한껏 상냥스러이 더없이 기꺼운 마음으로 그의 손을 친 채로 屍體 곁

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었다.

Graham Greene의 pity의 概念은 잘라말할 수는 없으며 그의 大先輩이자 그와 文學理念을 같이하는 Dostoevsky의 特히 그의 *The Idiot*에서 由來하는상 싫다. Greene이 pity, 概念에 가볍게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The Ministry of Fear*이며 *The Heart of the Matter*의 Scobie에 이르러서 本格的으로 이 問題를 다루게 되었다.

The Ministry of Fear(1943)는 二次大戰中の 스파이를 素材로 한 娛樂物(entertainment)이다. 그런데 主人公인 Arthur Rowe의 心理의인 發展을 描寫함으로써 Greene은, 사랑하는 能力이 利己主義로 인해서 무디어가는 한 사나이를 그려내고 있다. Rowe는 不治病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自己 아내를 毒殺하였다. 法廷은 그를 無罪로 석방하였지만 그것이 Rowe에게는 항상 殺人罪로 생각되어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安樂死 亦是 殺人이라고 Rowe에게는 생각되는 것이다.

Arthur Rowe was monstrous. His early childhood had been passed before the first world war, and the impressions of childhood are ineffaceable. He was brought up to believe that it was wrong to inflict pain, but he was often ill, his teeth were bad and he suffered agonies from an inefficient dentist he knew as Mr Griggs. He learned before he was seven a rat to suffer it. In childhood we live under the brightness of immortality—heaven is as near and actual as the seaside. Behind the complicated details of the world stand the simplicities: God is good, the grown-up manor woman knows the answer to every question, there is such a thing as truth, and justice is as measured and faultless as a clock. Our heroes are simple: they are brave, they tell the truth, they are good swordsmen and they are never in the long run really defeated. That is why no later books satisfy us like those which were read to us in childhood—for those promised a world of great simplicity of which we knew the rules, but the later books are complicated and contradictory with experience; they are formed out of our own disappointing memories of the V.C. in the policecourt dock, of the faked income tax return, the sins in corners, and the hollow voice of the man we despised talking to us of courage and purity. The Little Duke is dead and betrayed and forgotten; we cannot recognize the villain and we suspect the hero and the world is a small cramped place. The two great popular statements of faith are 'What a small place the world is' and 'I a stranger here myself.'

But Rowe was a murderer—as other men are poets. The statues still stood. He was prepared to do anything to save the innocent or to punish the guilty. He believed against all the experience of life that somewhere there was

justice condemned him. He analysed his motives minutely and always summed up against himself a hundred times, that it was he who had not been able to bear his wife's pain—and not she. Once, it was true, in the early days of the disease, she had broken down, said she wanted to die, not to wait: that was hysteria. Later it was her endurance and her patience which he had found most unbearable. He was trying to escape his own pain, not hers, and at the end she had guessed or half-guessed what it was he was offering her. She was scared and afraid to ask. How could you go on living with a man if you had once asked him whether he had put poison into your evening drink? Far easier when you love him and are tired of pain just to take the hot milk and sleep. But he could never know whether the fear had been worse than the pain, and he could never tell whether she might not have preferred any sort of life to death. He has taken the stick and killed the rat, and saved himself the agony of watching...²

Arthur Rowe는, Greene이 다섯해 후인 1948년에 發表한 *The Heart of the Matter*의 主人公인 Scobie를 예시하여주고 있는데 이 小說에서 pity라는 問題는 核心的인 重要性을 이루고 있다. 그뿐아니라 이 作品은 全體的으로 사랑이라는 問題를 曲解하고 있는 正義의 사나이가 漸次로 타락하여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 小說은 three books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째 卷에서 Greene은, 얼핏 보기에 남을 해칠 줄 모르는, 經驗이 풍부한 한 경찰관의 信念을 그려내고 있다. 그렇지만 애기 줄거리가 進展함에 따라서 바로 이 信念들이 점차로 不幸을 불러들이는 것을 讀者들은 목격하게 된다. Scobie는 Africa의 식민지에서 드물게 볼 수 있는 正直한 사나이들 중의 하나이다. 그는 조용한 性品에 平和를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爲人이다. 隣閔의 情에 예민한데다 眞理와 責任感이 強할 뿐더러 正義感에 있어 同僚間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다. 따라서 그는 同僚들의 崇尙을 한 몸이 모은 爲人이요 上司로 말미암아 正義派 스코비(Scobie the Just)라는 別名을 받을 地境이었다. 그런데 그 Scobie가 어쩔 수 없는 허물을 지니고 있었으니——그것인즉 남들이 고통에 잠기는 꼴을 보고 있노라면 그것이 모두 自己責任인 양 싫어지는 一種의 자부심같은 것이 그것이다. 悲劇的인 主人公처럼 Scobie의 滅망은 그가 지니고 있는 이 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 正義의 사나이를 破滅로 몰아가는 세가지의 決定的인 暗示들이

2) *The Ministry of Fear*, p. 88-90.

Book One에 들어있다. 위 사람들이 자신을 理解하여 주지 않는다고 의로워하는 그의 아내를 고민으로부터 구제하여야겠다고 男便은 自己約束을 하지만 그 約束이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다. 늘어만 가는 아내의 주름살을 볼때마다 Scobie는 漸次로 罪意識같은 것을 느낀다. "He had led the way: the experience that had come to her was the experiences selected by himself. He had formed her face."³ 그녀가 Scobie에게 식민지를 떠나게 해달라고 애원했을 때 그는 돈을 꾸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느낀다. 급기야 그는 절조가 없는 Syria의 장사군인 Yusef로부터 200 pound의 빚을 낸다. Yusef는 Scobie를 타락시킬 길을 찾아내려고 여러 해를 두고 애써왔던 처지이다. Scobie는 그에게 말한다, "Sooner or later, Yusef, I felt that you'd want something out of me. But you are going to get nothing but 4%."⁴ 그러나 이것은 Scobie가 저지르는 가장 심각한 과오들 중의 하나임을 讀者들은 안다.

Scobie가 사용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를 실패로 이끌고마는 또하나의 格言은 眞理에 關한 것이다.

The truth never has been of any real value to any human being—it is a symbol for mathematicians and philosophers to pursue. In human relations kindness and lies are worth a thousand truths.⁵

Book One에서 Scobie는, 船長이 敵地에 살고 있는 自己의 딸과 戰時法을 어기고 密通하고 있다는 事實을 報告하지 않음으로 해서 대수롭지 않은 軍法違反을 저지른다. 船長이 그의 딸을 끔찍이 사랑하는 모습이 Scobie의 심금을 울렸기 때문에 만약에 船長의 이 違法을 눈감아 주다가는 만 同僚들이 自己를 너무 나쁘게 생각할지 모른다는 걱정에 앞서는 것이 있다. 바로 그 연민에서 일어나 온 그가 난생 처음으로 저지른 거짓말이, Scobie로 하여금 Yusef의 손아귀에 갖다 놓는 그 술한 허위에 들어가는 길을 터놓아주고 있다는 事實이 나중에 明白하여진다.

Scobie에 일어나는 세번째 事故는, Louise의 最後를 예상케 하여준다. 그뿐더러 그가 自殺에 연관되어있음을 알고 있다는 事實이 讀者에게 뚜렷하여진다. Louise가 南阿로 떠나기 直前 Scobie는 密林으로 불리워 간다—목을 맨 젊은이의 죽음을 조사하기 위해서이다. 그는 "Dicky"라

3) Greene, Graham, *The Heart of the Matter*, p. 9.

4) *Ibid.*, p. 105.

5) *Ibid.*, p. 59.

고 서명된 비극적인 쪽지를 하나 發見하는데 그것을 司祭에게 傳達하고 나서 이렇게 말한다.

“...you're not going to tell me there's anything unforgivable there, Father. If you or I did it, it would be despair—I grant you anything with us. We'd be damned, all right, because we know, but he doesn't know a thing.”⁵

Scobie는 그때 熱病으로 들어눕게 되자 꿈자리가 뒤숭숭한채 잠을 이루는 동안 꿈에 그는 200이라는 數字가 여러가지로 무쌍히 變化하는 편지를 되풀이 읽는데 그 편지의 맨 밑에 서명이 “Dicky”가 되었다가 그것이 “Ticki”로 變하는 것이었다. 그 꿈은 Yusef가 나타남으로 깨게 된다. 꿈에서 깨고 보니 Scobie는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하였지만 讀者들은 200이라는 數字가 02가 되었다가 020가 되어서 Scobie의 꿈자리를 괴롭히는 것은 그가 Yusef로부터 200 pound를 빚내는 생각이요, “Ticki”는 Louise가 Scobie 부르는 別名이라는 事實을 讀者들은 누구나 알 수 있다.

Book Two는 난파船의 희생者인 나이 어린 女人 Helen Rolt와 Scobie에 걸린 야릇한 연문에 얘기로 集中되고 있다. 女子와 아이에 마음이 弱한 것이 그의 性品인지라 Scobie는 이 가련한 女人을 도와주려고 百方으로 애를 쓴다. 그러는 사이에 그는 自身도 모르게 自己기만에 빠지고 만다——自己肉慾의 힘이 아니라 自己연민의 힘을 過少評價하는 點에 있어서 말이다.

It seemed to him that he had not felt so much at ease with another human being for years not since Louise was young. But this case was different, he told himself; they were safe with each other. He was more than thirty years the older: his body in this climate had lost the sense of lust; he watched her with sadness and affection and enormous pity because a time would come when he couldn't show her around in a world where she was at sea. When she turned and the light fell on her face she looked ugly, with the temporary ugliness of a child. The ugliness was like handcuffs on his wrists.

He had no sense of responsibility towards the beautiful and the intelligent. They could find their own way. It was the face that would never catch the covert look, the face which would soon be used to rebuffs and indifference, that demanded his allegiance. The word “pity” is used as loosely as the word “love”: the terrible promiscuous passion which so few experience.⁶

5) Ibid., p. 89.

6) Ibid., p. 172.

그러나 Scobie와 Helen 사이에 事件을 생기게 한 바로 그 연민의 情이 그로부터 忠誠心을 계속 짜내게 하여, 결국 그는 조심성을 잃은 나머지 Yusef의 밥이 되어버린다. Helen은 그가 自己와 맺은 관계의 본바탕을 냉큼 의심한 나머지 自己에 對한 그의 사랑을 증명하라고 그에게 대어 드는 것이 아닌가. Scobie는 그녀로부터 손을 뗄 생각을 하여보고 그 생각과 갈등하여 보지만 "inexorably the other's point of view rose on the Path like a murdered innocent."⁷ Scobie는, 自身보다도 自己 아내보다도 아니 神以上으로 그녀를 사랑하는 것같다는 편지를 한다. 그러면서 그 편지를 꼭 간직하여달라고 그녀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이 「나는 그대를 행복하게 하여주기 爲해서라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든지 가리지 않고 하고 싶노라」고 하였다. 그가 雨中을 거닐면서 이렇게 혼자말로 조용히 뇌까리곤 하였다—"O God, I have deserted you. Do not you desert me."⁸ 그는 自己의 罪를 通해서 고민하게 될 사람이 따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Somewhere on the face of those obscure waters moved the sense of yet another wrong and another victim, not Louise, not Helen. Away in town the cocks began to crow for the false dawn.⁹

Book Two에서 일어나는 事件들은, Book One에서 Scobie가 지닌 行動의 특징인 순박한 面을 그는 完全히 험 질신짝 처럼 버리고 만다. 그는 이제는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연달아서 한다. 그뿐더러 그의 日記에서 제멋대로 빈말을 하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Louise에게 하곤 했던 이상야릇한 거짓말을 가지고 Helen의 공포를 달래 주는 것이다. 그는 그를 사랑하는 神을 다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이와같이 數없는 거짓의 부담이라든가 神父에 對한 그의 責任을 벗어 버릴 리는 정녕 없는 노릇이었다.

What would be the use? I know the answers as well as he does. One should look after one's own soul at whatever cost to another, and that's what I can't do.¹⁰

7) Ibid., p. 196.

8) Ibid., p. 197.

9) Ibid., p. 175.

10) Ibid., p. 199.

그가 自己 아내를 South Africa에 보내기 위해서 Yusef로부터 돈을 꾸었노라는 사연을 署長에게 털어 놓았을 때 그의 眞實性이 차츰 무너져 가는 것을 의식하는데, Scobie는 그 의식에서 自身을 구제하려고 발버둥 친다. 그렇지만 讀者들은 알고있다 — Scobie가 Yusef에게 공갈할 근거를 暗暗裡에 주었다는 事實을 말이다. Yusef는 Helen한테 가는 편지를 가로 채었다. 그래서 Louise가 돌아오면 그 편지를 그녀에게 주겠노라고 위협조로 공갈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Scobie로 하여금 自己의 寶石密輸에 協力하잖으면 안되도록 強要를 한다. Scobie가 두번째로 船長을 만날때 讀者들은 船長과 같이 Scobie의 性格에 여러 變化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된다. 船長에게 寶石 보따리를 주고나서 Scobie는 그가 船室을 수사하는 척 하는 동안 거울에 비치는 自身의 얼굴을 인식하지 못한다. Fattis와 Allot는 小說의 全體構造에 있어서 이 場面の 意義를 다음과 같이 評한다.

The smuggling incident is more closely linked than any of the others, because it again involves the Portuguese captain; and a comparison of the two scenes on board the *Esperanca* is a measuring-rod for determining the extent of Scobie's degradation in the time-interval between them. In the first Scobie is the beginner in wrongdoing, moved by pity for another to a venial breach of the law. In the second he has to humiliate himself before the captain by a sking a return for his charity.¹¹

Book Two의 事件은 그 다음에 數 많은 그릇된 것을 유발하기 때문에 Scobie는 그 結果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 Book Three는 그가 앞으로 만들어 내게 될 새롭고 한결 무시무시한 여러 결정사항들과 아울러 그의 道義的인 타락의 結果와 관련되고 있다. 그는 여기서 Louise라든가 Helen 그리고 神에 對한 그의 背信을 意識하게 된다. 그가 自己自身에 對한 信義를 喪失하게 됨으로 그는 他人들을 疑心하게 되고 그의 忠實한 下人인 Ali에 對하여 直接的인 責任을 意識하지 않는다. 結局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惡을 날라다준 者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自殺하려고 마음먹는다.

Book Three에서는 Louise와 Helen 중 어느 편에 보다 忠誠을 바치느냐 하는 問題로 Scobie의 마음이 갈등을 하게 된다. Louise가 집에 돌아오자 탐정이자 愛人을 위장한 Wilson이라는 사나이가 그녀에게 그의 男

11) Allot and Farris, p. 231.

便과 Helen 사이에 벌어진 情事의 內容을 꼬치꼬치 일러바치는 것이 아닌가. Wilson의 非難의 正當性을 시험하고 그녀의 男便으로 하여금 그의 宗教的 義務를 생각하게 하기 爲해서, Louise는 Scobie가 그녀와 같이 教會에 가서 고해하여 달라고 強要까지 한다. Scobie는 아내가 請하는대로 그가 저지른 姦通을 告白하여 고해聖事를 이루려고 애써 보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Helen을 悲慘한 處地에 내버리려고 마음먹기란 Scobie로서는 到底히 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는 「저로 하여금 神의 慈悲를 믿게 하여달라」고 司祭에게 애원하고자 하지만 憊우침을 要求하는 形式的인 말을 듣는데 成功할 수 밖에 없다. 그는 거짓말하기를 거절하였기에 罪狀(罪狀)사면이 되지 못한 채로 고해실을 떠나고 만다.

When he came out of the box it seemed to Scobie that for the first time his footsteps had taken him out of sight of hope. There was no hope anywhere he turned his eyes: the dead figure of God upon the cross, the plaster Virgin, the hideous Stations, representing a series of events that had happened a long time ago. It seemed to him that he had left for his exploration only the territory of despair.¹²

아내의 慰安과 그 自身の 破滅을 爲해서 聖體배령에 억지로 參席하였을 때 Scobie가 느끼는 마음의 갈등은 漸次로 견디기 어려워지게 된다. 自己元來의 모습 뿐만 아니라, Louise와 Helen에 對한 그의 責任感에 對한 神의 의무를 저버리고 말았음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는, 길다란 연쇄와 같은 祝祭日들과 永遠한 달력처럼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마사들이 走馬燈처럼 마음을 스친다.

"He had a sudden picture before his eyes of a bleeding face, of eyes closed by the continuous shower of blows: the punch-drunk head of God reeling sideways."¹³

人間의 사랑과 精神의인 사랑을 모독하고 나서 Scobie는 自己自身뿐 아니라 남들 역시 이제는 믿을 수 없고 神經過敏的인 疑心에 屈服하게 된다. 그의 冢마동이인 Ali와 오래동안 幸福스럽게 지내는 사이에 쌓이고 쌓인 오만가지 추억들을 젖혀놓고나서 Scobie가 Yusef에게 하는 말인 즉 Ali는 自身을 파멸로 이끌만한 것을 얼마든지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Yusef가 그에게 應答하는 말이 自己같으면 그녀석을 정말로

12) *The Heart of the Matter*, p. 246.

13) *Ibid.*, p. 64.

믿을 만한 놈으로 만들 自信이 있다면서 그따위 것 아무러면 어떠냐고 다그치듯이 말문을 막는 것이 아닌가. 그는, Scobie가 지금 당장 Ali가 必要해서 아이를 보낼 터이니 무슨 증거같은 것이라도 없느냐고 묻자, Scobie는 내키지 않는 듯이 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염주알을 건네준다. 그렇지만 그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차츰 不安해지기만 하였을 뿐 Ali는 돌아오질 않는다. 바로 그때다. 고통과 공포가 뒤섞인 고탈소리가 그의 귓전을 찌르는것이 아닌가. 갑작 놀라서 Scobie는 Yusef의 집문을 박차고 나간다. Ali의 屍體가 Scobie의 눈에 띄었을 때 그것은 보잘 것 없는 까만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마치 깨어진 염주조각마냥 Scobie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소리는, 그가 느닷없이 Ali 뿐아니라 神마저도 못 믿게된 그가 지닌 바 의식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만 같았다.

O God, he thought, I've killed you: you've served me all these years and I've killed you at the end of them. God lay there under the patrol drums and Scobie felt the tears in his mouth, salt in the crack of his lips. You served me and I did this to you. You were faithful to me, and I wouldn't trust you.¹⁴

Scobie는 이 이상 기도를 드릴 수 없다고 느꼈지만, 마지막으로 神에게 얘기를 드릴 目的으로 教會쪽으로 발을 옮긴다. 그는 神에게 苦痛을 주고 싶어서이다—왜냐하면 神이 고통에 잠겨있는 모양을 자기 눈으로 보아야만 하겠기에. 그렇지만 Helen이나 Louise가 고통에 잠기어 괴로워하는 꼴은 참아 목격할 수 없다. 그는 이 女子들에게 고통을 이 이상 갖다 줄 수 없다. 그뿐더러 神을 계속 욕되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지만 그가 이 궁리 저 궁리하고 있는 동안 Pinkie를 괴롭히던 것과 똑같은 유혹이 Scobie를 찾아들어 그에게 神을 믿으라고 비는 것이다.

It was as if the sacrament which had lodged there for his damnation gave tongue: You say you love me, and yet you'll do this to me—rob me of you for ever. I made you with love I've wept your tears...the repentance is already there, straining at your heart. It's not repentance you lack, just a few simple actions: to go to the Nissen hut and say good-bye. Or if you must, continue rejecting me but without lies any more. Go to your house and say good-bye to your wife and live with your mistress. If you live you will come back to me sooner or later. One of them will suffer, but can't you trust me to see that the suffering isn't too great?¹⁵

14) Ibid., p. 277.

15) Ibid., p. 290.

그렇지만 Scobie는 대답을 한다——그가 神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神을 믿지는 않는다고:

“If You made me, You made this feeling of responsibility that I’ve always carried around like a sack of bricks I’m not a policeman for nothing responsible for order, for seeing justice is done.”¹⁶

그는 그런 다음 祭壇을 등지고 自殺할 마지막 차비를 하기 爲해서 教會를 떠난다.

Scobie는 그가 미리 꾸며 마련해 놓은 협심증을 爲한 致命的인 藥을 먹는다——이것 만이 오직 하나 밖에 없는 해결책이라고 굳게 믿고서 그는 뉘우치는 행위를 말하려고 애쓰지만 미치 끝을 내지 못한다. 그는 누군가가 그가 必要하여서 그에게 애뜻하게 호소하는 것만 같았다.

And automatically at the call of need, at the cry of a victim, Scobie strung himself to act. He dredged his consciousness up from an infinite distance in order to make some reply. He said aloud, “Dear God, I love...” but the effort was too great and he did not feel his body when it struck the floor or hear the small tinkle of the medal as it spun like a coin under the ice-box—the saint whose name nobody could remember.¹⁷

Greene은 意識的으로 애매한 결미(結尾)를 맺고 있다——Scobie가 “I love Helen and Louise”라던가 “I love you”라고 쓰려고 한것이 아닌가를 아무도 모른다. Scobie의 運命에 關한 Louise의 見解는, 나중에 Greene과 司祭사이에 오간 討論에서 밝혀진다. 狹心症이 바로 Scobie의 死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창피한 생각이든 Louise는, 지옥에 타락한 것을 自身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을 爲해서 기도를 드려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으랴 싶어서 神父에게 거친 투로 대들었지만 神父는 골이 나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For goodness’ sake, Mrs. Scobie, don’t imagine you—or I—know a thing about God’s mercy.”

“The Church says...”

“I know the Church says. The Church knows all the rules. But it doesn’t know what goes on in a single human heart.”¹⁸

그런 다음 神父는 그녀에게 그래도 입맛이 쓰냐고 묻는다. 그럴 理가

16) Ibid.

17) Ibid., p. 299.

18) Ibid., p. 306.

있느냐고 그녀가 대답하자 神父가 덧붙이는 말이——「그럼 神께서 女人보다 더 상심깊다고 생각하시오?」 Scobie에 對한 窮極의인 評은, 타락한 主人公에 對한 著者의 意見을 明白히 하여 주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게 들릴는지 모르지만 더우기 그런 큰 과오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말입니다——그러나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은 정녕 주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神이외에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고 외쳤을 때 Scobie 부인의 말투는 다시금 自信滿滿하기만 하였다. 神父의 對答은 이 作品의 마지막 줄이된다. “And you may be in the right of it there, too.” 여기에서 우리는 Scobie의 몰락이 뜻하는 것과 그가 죽은 뒤의 녀의 상태에 이르는 비결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

神父의 評은 逆說의인 것 같이 들릴는지 모른다——왜냐하면 한 사나이가, 그의 아내와 愛人에 끼쳤었던 고통을 참을수가 없기 때문에 自殺을 저질렀을지라도, 그는 아내와 愛人 중에서 어느 쪽도 진실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넘치지 엇대어 말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지만 Scobie가 만 사람들과 맺은 여러 관계의 밑바닥을 우리가 다시금 살펴본다면 그를 사람들과 맺은 것은 언제나 연민의 정(pity)이나 同情같은 것이지 眞情한 뜻의 사랑은 絶對로 아니었다. 讀者들은 맨처음 Scobie가 텅빈 事務室에서 외로운 모습으로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절친한 親舊도 없으려니와 어떤 사람하고도 참된 인연같은 것을 맺지 않고 있다. 爲人 그는, 感情을 서로 나누지 않고서 Ali와 같이 있을 때 다시없이 幸福스럽기만 하였다.

He could see in the driver's mirror Ali nodding and beaming. It seemed to him that this was all he needed of love or friendship. He could be happy with no more in the world than this—the grinding van, the hot tea against his lips, the heavy damp weight of the forest, even the aching head, the loneliness.¹⁹

Scobie가 Louise나 Helen에게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唯一한 때는 그가 그녀의 不安을 진정하기 위하여 그렇게 할 때이다. 그러나 그는 그들 중의 하나를 속이는데 成功할 수는 없다. Louise는 그녀가 南阿로 떠나기 전에 Scobie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I know you aren't happy either. Without me you'll have peace.” This was what he always left out of account the—accuracy of her observation. He

19) Ibid., p. 84.

had nearly everything, and all he needed was peace. Everything meant work, the daily regular routine in the little bare office, the change of seasons in a place he loved. How often he had been pitied for the austerity of the work, the bareness of the rewards. But Louise knew him better than that. If he had become young again this was the life he would have chosen again to live: only this time he would not have expected any other person to share it with him, the rat upon the bath, the lizard on the wall, the tornado blowing open the windows at one in the morning, and the last pink light upon the laterite roads at sundown.²⁰

그리고 나중에 Scobie는, Louise와 Helen에 對한 그의 約束이 誠實치 못함을 認定한다.

Did my lies really start, he wondered, when I wrote that letter? Can I really love her more than Louise? Do I, in my heart of hearts, love either of them, or is it only that this terrible pity goes out to any human need—and makes it worse? Any victim demands allegiance.²¹

Greene이 Scobie에 있어 힘차고 明快하게 나타내는 것은 연민이 사람을 現實逃避에 이르게 할 뿐더러, 사람을 단 사람들로로부터 孤立시키고 自己밖에 모르는 어마어마한 벽에 부딪히게 만든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自己自身에만 依存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사랑은 사람들의 意思소통을 풍부하게 하여주는 것을 말할 나위도 없으려니와 믿음의 바탕을 만들어 준다. 하지만 연민은 그의 主人인 사랑과 떨어지면 우리 넋을 상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Scobie가 가령 단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가 神을 사랑했다고 믿을 수 있다고 司祭는 어떻게 말할 수 있으며, 기꺼히 自殺한 이 사나이에 對한 神의 慈悲라는 선물에 言及할 수 있단 말인가? 數 많은 天主教徒들은 그것을 「狂의인 神의 모독」(mad blasphemy)이라고 부르는 Evelyn Waugh를 포함하여 *The Heart of the Matter*에 보이는 이 奇異한 說로 말미암아 極度로 어리둥절 하여왔다. Greene은 이 폭발적인 發言에 唐慌하여서 *Time*의 記者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I write a book about a man who goes to hell, another about a man who goes to heaven, and now I've simply written one about a man who goes to purgatory. I don't know what all the fuss is about."²²

20) Ibid., p. 60.

21) Ibid., p. 227.

22) Atbins, John, *Graham Greene*, p. 193.

Greene은 哲學者도 아니요, 教會神學者도 아니지만 司祭의 말은 異國情緒的인 異說도 아닐 뿐더러, 著者는 Pierre Abelard(1079—1142, 불란서의 스콜라 哲學者)가 세워놓은 危險스럽게 짝이 없는 개념의 말뚝을 타리 위에 의지하기로 마음 먹었다. 司祭가 Scobie 부인에게 이런 말을 한다. “The Church knows the rules. But it doesn't know what goes on in a single human heart.” 이 陳述이 지닌 함축들은 Scobie가 큰 罪를 저지르면서 죽었다고 해서 教會는 그가 지옥에 떨어졌다고 斷言할 수 없다. 바꾸어 말을 하자면 오직 神만이 個人的 意思를 判斷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點을 밝히려고 Abelard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神을 업수이 여기는 바로 그 動機가 惡의 本質이라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 動機의 善한 面과 惡한 面을 또 한편 行爲의 착한 面과 긋은 面을 식별하는 것이 絶對 必要하다. 한 사나이가 自己 눈에 띄는 새를 보고서 활을 쏘려다가 보이지 않는 사람을 쏘아 죽일 수 있다——행동은 악하지만 動機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罪는 行動自體에 있는 것이 아니라 個人的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神만이 오직 사람의 마음과 그의 動機를 알 수 있을 뿐이요 神만이 Scobie가 罪를 저질렀는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Greene이 司祭의 말에 있어 問題삼으려는 ‘問題’인 즉 Scobie가 果然 神을 사랑하였는가라는 진짜의 核心(heart of the matter)으로 우리들을 이끌고 간다. 그렇지만 Greene이 이 作品을, 지옥이 아니라 연옥에 간 사나이에 關한 얘기라고 認定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 이 小說에 어느 程度의 그런 근거가 있어야만 하겠다. *Mon Ami Graham Greene*은 이 책의 著者인 Ronald Mathews와 Greene 사이에 오간 一聯의 對話들이거늘 이 책에서 Mathews가 말하기를 Greene은 表面上 單純해보이는 걸음이 사람들을 오래동안 견제하는데 이런 것에 제법 매혹을 느끼는 상 싫다고 말한 바 있다. 허지만 Greene은 인간이 罪에 기울어지려는 경향에 필수있는데로 저항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事實을 또한 神이 알고 계신다.²³ 疑心할 餘地없이 Scobie는 그가 범한 그 슬한 罪狀을 꼼꼼히 생각할 뿐더러 그가 버릇처럼 저지른 옴지 못한 일에 중지부를 찍으려고 안간힘을 다 한다. 그런데도 Scobie가 神을 사랑하고 있는 事實을 믿고 그가 人類를 연민이 아니라 진짜로 사랑하고 있음을 믿을 만한 힘찬 근

23) Ronald, Mathews, *Mon Ami Graham Greene*, p.214.

거가 本文(text) 自體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Scobie는, 한 어린 아이의 平和를 爲하여 自身の 속죄도 포기하고 있다. 難破船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病院에 이끌려 왔을 때 Scobie는 죽어가는 어린애와 자리를 같이하면서 神이 이 少女를 그냥 무시무시한 苦痛에서 救濟하여 주고 그녀에게 平和를 베풀어주십사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그는 이 아이를 爲해서 束手無策이지만 神에게, 이 아이가 安息을 찾을 수만 있다면 永生대신에 自己自身の 슬한 慾望을 神에게 송두리채 바치려고 한다. "Father, give her peace. Take away my pecae forever, but give her peace."²⁴ 만약 이것이 眞正한 기도였다면 Scobie가 저질은 後半의 行動들이야말로 그것에 對한 對答이 아닐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Greene이 쓴 이런 類의 희생을 主題로 하는 作品들을 두 가지 들을 수 있을 것이다. "The Potting Shed"(1957)는 自己의 가장 소중한 所有物—— 信仰을 바치는 司祭를 하나의 劇으로 엮은 것인데 이 作品에서 목어 죽은 조카의 生命을 爲해서 司祭의 要請이 이루어진다. 이 조카가 生命을 되찾고 司祭는 信仰이 없는 채로 自己의 義務를 遂行하느라고 여러 해동안 苦生하다가 마침내 두 사람은 융합되고 司祭는, 神이 自己의 기도에 보답한 것을 깨닫기에 이른다. *The End of the Affair* (1951)에서 이 作品의 女主人公인 Sarah는, 그녀의 愛人인 Miles의 屍體 앞에 허리를 굽혔을 때 그녀로 하여금 믿게하여 달라고 기도를 올린다. 그리고나서 그녀는 똑같은 희생을 하는 것이다.

Make me believe. I shut my eyes tight and I pressed my nails into the palms of my hands until I could feel nothing but the pain, and I said, I will belive. Let me be alive, and I will believe. Give me chance. Let me have his happiness. Do this, and I'll believe. But that wasn't enough. It doesn't hurt to believe. So I said, I love him and I'll do anything if you make me alive. I said very slowly, I'll give him up forever, only let him be alive with a chance.²⁵

Scobie가 염원하는 平和의 꿈, 司祭의 믿음, Sarah의 애인—— 이들은 저마다 뜻깊은 生命을 지니고 있는 所重한 것들이었다. 眞 사람의 행복을 爲하여 각자가 自己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神에게 바칠 뿐 아니라 자랑스러운 희망에는 으레 따라다니기 마련인 괴로움을 꼭 참아낸

24) *The Heart of the Matter*, p. 130.

25) *The End of the Affair*, p. 79.

다. 神은 고뇌는 말한 것 없고 희생의 誠實性이 試驗되는 期間을 진정으로 요구한다. 모르면 모르되 이것이 이 小說의 흠일는지 모른다——왜냐하면 讀者들은 作品 속에서 그 어린 少女를 손쉽게 만나기 때문에 그들은 이 事實을 쉽사리 無視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에게 平和를 베풀었던 것이며 Scobie 역시 그가 연옥에서 고통을 실컷 겪고나서 平和를 찾을 것이라는 事實을 우리들은 추측해야만 할 것이다.

Scobie가 永劫의 罪를 받느냐 여부의 問題를 가지고 두사람의 불란서 實存哲學者들——Marcel Moré와 Raymond Jouve——이 여러가지 面에서 서로 相反되는 見解를 披歷하고 있지만 하나의 重要的 觀點에서 그들은 合意를 보고있다. William Birmingham이 요약한 바에 依하면 다음과 같다.

“They (Marcel Moré and Raymond Jouve) see Scobie’s offering of his damnation as the consummation of the novel... Jouve does not attempt to judge the efficacy of such a sacrifice in Scobie’s case; Whereas Moré calls it an act of love, sufficient...to save his soul. Pity becomes love when the self is forgotten in sacrifice”²⁶

그리고 Moré는 Scobie의 기도에 關해서 다음 같이 말하고 있다.

I always believe that such prayers, though obviously a God would not fulfill them to the limit of robbing him of his peace for ever, are answered up to the point as a kind of test of a man’s sincerity and to see whether in fact the offer was entirely based on emotion.²⁷

그러나 Moré와 Jouve에 關한 Birmingham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색다른 고도 興味津津한 批評이 Scobie의 희생이라는 問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Jouve, since he is not concerned with proving Scobie’s salvation, might have taken into consideration what Moré has ignored. In other words, is the extraordinary act of love which the holocaust of damnation demands psychologically in keeping with Scobie’s character? or with the state of his soul? The fine distinction of intention which such a sacrifice requires, an overwhelming desire to give everything possible to God, even the desire to see Him, would not seem to proceed logically from Scobie’s state of soul. I think that Greene meant that it should, but I have the feeling that he has

26) Birmingham, William, “Graham Greene Criticism: A Bibliographical Study” *Thought*, XXVII (Spring 1952), 91.

27) *Ibid.*

imposed the act of love on his hero. There is a reversal of the Kierkegaardian leap to God when His grace suddenly transforms the parody into love itself. The reader sees Scobie extend his pity to God, but must take its metamorphosis on faith.²⁸⁾

結論的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Scobie의 희생은 사람의 희생도 아니요, 單純히 연민의 또 하나의 본보기도 아니라는 것을 讀者들이 느끼든 안 느끼든 간에 Greene은 그렇게 確信하고 있는 상싶다 — 말을 바꾸자면 이 作品 *The Heart of the Matter*는 Scobie의 희생問題를 다루는 同時에 또 하나의 연민(pity)을 다룬 것이라는 말이다. Scobie는, Louise와 Helen의 幸福에 對한 責任感을 神에게 위축하지 않은 것처럼 그는 船長의 편지를 檢閱官에게 떠맡기지 않은 것이 分明하다. 그렇지만 Greene이 보기에는 Scobie는, 虎心탐탐하게 사랑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神을 眞正 사랑하였다. 教會는 그의 自殺이 莫重한 罪라고 말한는지 모르지만 Greene은 알고 있다 — 教會가 Scobie가 그렇게 莫重한 罪를 저지르게 된 그의 참된 動機誘發(motivation)을 理解할 리 萬無일 것이요, 따라서 그가 이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말들의 問題에 對해서 結定的인 解答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I love”라는 말의 애매모호함은 Greene의 意圖와 어찌면 그렇게 잘 들어맞느냐 말이다. 그는 John Donne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引用하였다면 하는 생각이 든다.

Thou knowest this man's fall, but thou knowest not his wrastling; which perchance was such that almost his very fall is justified and accepted of God.

Scobie의 精神的인 運命에 對하여 우리는 믿음에 가지 않는 點이 적지 않은 것이 事實이지만 Greene은, Scobie가 지닌 연민이라든가 그의 그릇된 責任意識을 判斷하는 點이 이를 데 없이 뚜렷하다. 그는 Scobie가 생각하는 同情의 종류를 사랑에서 한걸음 後退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 同時에 연민의 結果는 멸망과 고통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提示하여 주고 있다. 연민은 同情(compassion)의 代用品은 정녕 아닐 것이며 착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이들 兩者 다시 말하여 연민과 同情을 區別하는 일에 눈이 어두운지라 그들은 그럴사하게 變裝한 교만(pride)에 이윅고 굴복하고 말게 된다. Scobie라든가 神만이 누릴수 있는 특권을

28) Birmingham, pp. 91-92.

대담하게도 行使하려는 어떤 사람도 宿命的으로 結局은 失敗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W. H. Auden은, Greene이 연민의 병폐를 分析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Behind pity for another lies self-pity, and behind self-pity lies cruelty. To feel compassion for someone is to make oneself their superior and from that eminence the step to the torture chamber and the corrective labor camp is shorter than one thinks.²⁹

Greene은 Scobie를 상냥할 뿐더러 온순하게 그려서, 讀者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高度로 감별케 하여주는 反面, 이 作家는, 그들을 強要하여 Scobie의 연민이 지니고 있는 바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은 채로 외고집만 부리는 面을 認定시키고자 한다. 結論은 이미 내려진 셈인데도 筆者는 무엇인지 꼭 해야만 할 얘기를 빼어놓은 것만 같아서 不滿스럽기 限이 없다. 마지막으로 蛇足같은 것을 한가지만 덧붙이고 나서 나의 이 拙文을 매듭지을까 한다. 이 作品의 벽두에 다음과 같은 警言(epigram)을 볼 수 있다. “Le pécheur est au coeur même de chretienté...Nul n'est aussi compétent que le pécheur en matière de chrétiente. Nul, si ce n'est le saint. (罪人은 基督教의 世界에 中心에 있다. 基督教에 關한 일이라면 罪人보다 잘 알고있는 者는——聖者라면 혹시 모르되 따로 없을 것이다)” 이 말은 Greene이 좋아하는 불란서의 詩人이자 평론가인 Charles Péguy (1873—1914)의 것으로 이 作品의 主題와 通하는 點이 있다. Greene의 “heart of the matter”라는 表題는 아무리 생각하여 보아도 「基督教라는 문제의 中心」으로 풀이가 되는 고로, 그는 christianity의 中心에 서서 하나의 罪人, 聖者이외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基督教의 本質에 육박하고 있는 하나의 罪人의 모습을 Scobie라는 사람 속에 찾으려고 하는 것 같다. “the heart of the matter”라는 말이 이 作品에서 맨처음으로 登場하는 部分을 찾아보면 Book Two의 Part one (chapter I, 3)으로 Scobie가 難破船의 收容者들의 慘狀을 보기 爲하여 갑자기 지어진 臨時病院을 찾는다. 그는 醫師의 입에서 한 少女가 아침까지는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Outside the rest-house he stopped again. The lights inside would have given an extraordinary impression of peace if one hadn't known, just as the stars on this clear night gave also an impression of remoteness, security,

29) Auden, W. H., “Heresy of our Time,” *Renaissance*, 11(1949), 24.

freedom. If one knew, he wondered, the facts, would one have to feel pity even for the planets? if one reached what they called the heart of the matter?

罪人만이 基督教의 眞髓를 안다는 Greene의 생각이 옳다 그르다는 것은 이 方面의 問外漢인 나로서는 잘 알 수 없는 것이로되 이것이 그의 信念인 것만은 틀림없는 상 싶다. 그것이야 여하튼 Greene의 作品中에서 이런 人物이 Scobie 以外에도 *Brighton Rock*의 Pinkie와 *The Power and the Glory*의 whisky priest가 있다. 이러한 Greene의 態度를 일컬어 罪人の 찬미(Glorification of Sinners)라고 부르는 모양이다.

Book One에서 그처럼 誠實하고 責任關念이 강한 이른바 模範官吏인 Scobie가, 얘기가 Book Two에 접어들고서부터 漸次로 타락하기 시작하여 story가 終末에 다가설 무렵에 救濟받기 어려울 程度의 罪人으로 沒落하여 버리고마는 까닭은 무엇일까? 사람이란 아무리 조심 조심 罪를 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하여도 自己도 모르는 사이에——아무리 善人일지라도, 罪가 달라붙기 마련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 後天的의 아니라 先天的으로 사람은 罪를 지은채로 이승에 태어났다고 하는 편이 좋으리라. 이것을 天主教에서 原罪(original sin)라고 하는 모양인데, 天主教를 잘 모르는 내가 어찌 原罪問題를 云云하라!

Bibliography

1. Books by Graham Greene

Brighton Rock: Penguin Books, 1970.

The Power and the Glory: Ponguin Books, 1971.

The Ministry of Fear: Penguin Books, 1973.

The Heart of the Matter: Heinemann, 1948.

The End of tha Affair: Penguin Books, 1973.

The Potting Shed: Penguin Books, 1971.

II, Related Authors

Conrad, Joseph: *Heart of Darkness* (A Norton critical edition), 1971.

Dostoevsky, Fyodor: *The Idiot*, Translated by David Magarshack, 1973.

III, Criticism

Allot Kenneth and Miriam Farris, *The Art of Graham Greene*,

- New York/Russell Russell, 1951.
- Atkins, John. *Graham Greene*, London: John Colder, 1970.
- Auden, W. H. "Heresy of Our Time., *Renaissance*, I (1949), 23-24.
- Birmingham, William. "Graham Greene Criticism: A Bibliographical Study," *Thought*, XXVII (Spring 1952), 72-100.
- Kohn, Lynette, *Graham Greene: The Major novels*, California, 1961.
- Matthews, Ronald, *Mon Ami Graham Greene*, Paris: Browor, 1957.
- ドストエーフスキ再観 昇曙夢譯編 ナウカ社, 昭和九年
- ドストコフスキ E. H. Carr 著 中村一夫 松村達雄 譯 社會思想研究會, 昭和 27年
- 文體論: 東田千秋, 研究社, 昭和 34年
- IV. Supplementary References
- Gilson, Etienne, *History of Christian Philosophy in the Middle Ages*, New York: Random House, 1954.
- McGraw-Hill Book Company: *The Catholic Encyclopedie*(8)
- グレアム. グリーン: 青木雄造(編), 1975.